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4
----------	------

발의연월일 : 2024. 11. 5.

발 의 자 : 엄태영 · 조지연 · 박덕흠
권성동 · 유상범 · 고동진
서천호 · 이달희 · 조경태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수를”을 “방수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

제5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침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 시 감전사고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 ----- ----- ----- ----- ----- <u>--방수 등을--</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u>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층) ----- ----- <u>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